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NEWSLETTER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문화관 (73동) 통일연구소 Homepage: <http://tongil.snu.ac.kr>  
 Tel: 02) 880-4052-4 Fax: 02) 874-7305 E-mail: [tongil@snu.ac.kr](mailto:tongil@snu.ac.kr) 발행인 박명규 편집인 허정범, 한경은

## 통일연구소 창립2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 평화, 그리고 실용주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비전과 쟁점



통일연구소는 5월 20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평화, 그리고 실용주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비전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창립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인사말에서 박명규 소장은 정권교체 후 남북관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가 제시한 ‘비핵·개방·3000’의 정책적 구체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새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구축의 역량을 증대할 의무가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보다 이성적으로 전환시켜 21기형 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제1회의에서 학계, 연구기관, NGO, 인권, 문화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구상에 대한 기대와 제언을, 제2회에서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보는 미국, 중국, 일본의 관점을, 마지막 회의에서 6자회담, 남북경협, 인권 세 가지의 의제를 중심으로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을 지낸 현인택 고려대 교수는 ‘비핵·개방·3000’이 이념에 천착(穿鑿)해 만든 것이 아니며 ‘5대 원칙’에 기초한 것이라며,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둘째 그 방법에선 융통성을 발휘하고, 셋째 비핵화와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은 하고, 넷째 경제협력은 비핵화와 연계시키고, 다섯째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김주현 현대

경제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과거 대북 정책과 단절하기보다는 이전의 긍정적 실적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적극적이고도 실용적인 남북 경협 모델을 실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진성 서울대 교수 역시 지난 10년간 진전시켜 온 남북관계를 되돌릴 필요가 없으며 ‘비핵·개방·3000 구상’에 인권문제가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제2회의에서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 스탠퍼드대 연구원(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앞으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동문제에 때문에 북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로 밀리고 6자회담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당선돼 임기 첫째 김정일을 만나고 북미 직접협상을 강화하여 이명박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 김경일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비핵·개방·3000’은 대북정책으로 구체화하지 못한 채 슬로건에 머물러 있으며, 비핵과 개방을 조건으로 한 압박식 대북정책은 북한 및 중국으로부터 지지받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코노키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경계해야 할 점은 대북정책의 경직된 운용과 이전 정권이 추진한 대북정책과의 과잉 차별화하는 것이라며 인도적 식량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바로 이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제3회의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북핵 문제의 구조상 현 정부의 구상처럼 순차적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비핵은 비핵대로 추구하고, 개방은 개방대로 유도하며, 3,000달러는 3,000달러대로 경험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0년 후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강한 주장이라며 이 계획은 한국의 2008년도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는 공약보다 훨씬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에 쌀과 비료를 먼저 제공하는 행위가 바로 소프트파워를 갖는 것이며, 도덕과 의리, 명분을 중시하는 북한을 압도하는 방법이라며 대한민국 선진화는 바로 이러한 소프트파워를 축적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제1회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성에 대한 기대와 제언**

- 사회 운영관(서울대 교수)
- 패널 현인택(고려대 교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
- 이봉조(통일연구원 원장)
- 김주현(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
-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운영위원장)

- 도종환(시인,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정진성(서울대 교수,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제2회의: 국제적 관점에서 보는 실용주의 대북정책**

- 사회 장달중(서울대 교수)
- 발표 데이비드 스트로브(스탠포드대, 전 미국무부 한국과장)
- 김경일(중국 북경대 교수)
- 오코노키 마사오(일본 게이오대 교수)
- 토론 신상진(광운대 교수)
- 신욱희(서울대 교수)
- 이원덕(국민대 교수)
- 홍규덕(숙명여대 교수)

**제3회의: 남북관계의 현실과 실용주의의 정책화 구상**

- 사회 함택영(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발표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 김병연(서울대 교수)
- 김병로(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
- 토론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IUS**

## 통일연구소 창립2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의 역할



통일연구소는 5월 21일 창립2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원탁회의를 호암교수회관에서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박명규 통일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원(전 국무부 한국과장), 김경일 북경대 교수, 오코노키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를 비롯하여 김광익 교수, 박철희 교수, 백진현 교수, 신욱희 교

수, 이근관 교수, 정재호 교수(이상 서울대),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다루는 대학의 연구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위상, 역할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으며,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세 국가의 한반도 문제 관련 대학의 연구소 현황 및 사례 경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북한 및 남북관계,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다루는 대학의 연구가 다른 연구와 달라야 하는 점에 대해 첫째, 비판적이어야 하며, 둘째, 학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해야 하며, 셋째, 장기적이고 기초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견해를 같이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대학 연구 기관으로서 통일연구소가 앞으로 북한 연구기관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포함하여 국제적 교류를 정기적으로 가져야 하고, 정부 기관과 다른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하며, 후학양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교내 차원의 연구역량을 넘어 전직 외교관, 언론인, 교수 등에게 적절한 지위와 역할을 제공하여 인적역량을 폭넓게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IUS**

## IUS 겸임연구원 개성시내 / 공단 견학



사진 1. 개성공업지구 개발 현황 브리핑(현대아산)



사진 2. 선죽교 앞에서

지난 2월 29일 금요일 정운찬 교수를 비롯한 통일연구소 겸임연구원 및 관계자 38명이 개성 시내 및 공단을 견학하였다. 이번 견학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견학이었지만 개성시내 관광사업이 시작된 후 첫 방문이라는데 의미가 컸다. 개성시내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었고 여러 문화유적지를 거치며 향후 개성관광산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작년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현장을 접하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 한반도의 화해·협력 10년 - 평가와 전망



서울대 통일연구소는 5월 30일-31일 양일간 리츠메이칸 대학 코리아연구센터 및 국제지역연구소와 함께 [朝鮮半島の 和解와 協力 10年- 評價와 展望] (Ten Years of Engagement Policy in the Korean Peninsula: Evaluation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이란 주제의 국제학술포럼을 공동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리츠메이칸 대학의 創思館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되었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사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였다.

이 심포지움에는 미국 Korea Society의 Evans Revere 회장, 전 뉴욕타임지 논설위원이었던 Leon Seagul, 존스 홉킨스 대학의 서재정 교수, 호주 ANU의 Gaveon McCormack, 일본 동경대학의 木宮正史 교수, 리츠메이칸 대학의 徐勝 소장과 中戸祐夫 교수, 릿쿄대학의 이종원 교수, 동양학원대학 朱建榮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박명규 소장을 비롯하여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 장달중 서울대 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남기정 국민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또 岩國哲人 일본 민주당 중의원 의원, 徐忠彦 조총련 국제통일국장, 岡本厚 [世界] 편집장 등도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 한반도에서 진행된 화해협력정책 전반에 대하여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맥락에서 평가하고 미래

를 위한 교훈을 찾으려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전개했다. 전반적으로는 남북한의 화해협력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과 새로운 정책적 노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교환되었다. 참석자들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가 필수적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해 주변의 국가들과 지식인들이 함께 후원하고 참여해야 할 것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IUS



## 2008상반기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통합연구를 위한 북한실태 재조명 : 보건/복지/법/인구/생태



2008년도 상반기 통일학 기초연구학술 심포지움이 2월 19일(화)과 2월 27일(화) 2차례에 걸쳐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통합연구를 위한 북한 실태 재조명을 주제로 하여 1차에는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2차는 법/인구/생태 분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1차 심포지움 제1회의에서 “1960, 70년대 안정기의 북한 보건의료”를 주제로 발표한 황상익(의학과) 교수는 1950-70년대 남북한의 건강지표는 북한이 조금 낫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며, 남북한 모두 건강 측면에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 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남북한 체제 경쟁 속에서 북한의 “무상치료제”와 그에 대한 선전은 의료보험 도입 등 남한의 보건의료정책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금순(간호대학) 교수는 “남북한의 장애정책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접촉 경험 비교”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실제적인 의료 재활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며, 남한의 경우 최근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의료 정책 등이 활성화되어 오고 있다고 비교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남한의 재활의학 의료진을 중심으로 민간 교류인과 함께 적극적인 의료재활 교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회의에서 “통일과정에서의 북한 어린이 건강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정광호(행정학과) 교수는 북한 어린이 건강 문제의 연구에 있어서 의료적 요인과 비의료적·사회적 요인 등의 상호 이질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을 적절히 범주화하고, 변수간 복잡한 상호관계에 대한 인과모형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회의의 두 번째 발표에서 정효지(보건대학원) 교수는 “탈북 청소년의 건강위험 실태 조사”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정신 건강, 흡연, 식생활, 운동의 4가지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2차 심포지움 1회의의 첫 번째 발표는 이근관(법학과) 교수의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분석: 북한 국제법사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통해 북한이라는 정치체에 대해 국제법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두 번째 발표에서 박경숙(사회학과) 교수는 “북한의 인구: 1990년대 경제난/기근과 인구변동의 관계”에 대해 그간 자료의 제한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면 본 연구가 지금까지 닫혀졌던 인식의 경계를 뛰어넘어 통일된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기초자료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회의에서 “북한 사회의 체제유지 기제의 성격과 변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이온죽(윤리교육과) 교수는 북한의 외곽단체들의 특성과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과정과 그 이후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배은경(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 교수는 “남북여성교류와 남북여성의 통합화에 관한 연구”에서 남북한 여성들이 꾸준히 만나면서 각각의 사회를 좀 더 알고 그 속에서 여성의 경험과 의식이 어떤 식으로 주조되고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넓혀나가는 것이 신뢰와 소통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회의에서 이용환(농산업교육과) 교수는 “남한 기반 산업체 취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직업능력 요구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의 개선사항을 교육 내용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최진용(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북한 가뭄 특성 분석 및 가뭄 우심 지도 작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은 특히 1999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시기에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해산, 풍산, 수풍, 신포, 양덕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남식(수의학과) 교수는 “DMZ 지역내 생태환경 보전방안 및 관리지침서 개발”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DMZ 자연생태계를 비롯한 생태네트워크의 가장 강력한 위협요인은 도로와 철도 등의 인공 선형구조물로서 서식처의 파편화와 생물종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IUS

## 제1차 보건 / 복지

### 제1회의 보건·복지 I

사회 : 이순형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제1발표 : 1960·70년대 체제 안정기의 북한보건의료

발표 : 황상익 (서울대 의학과 교수)

토론 :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보건의료팀장)

제2발표 : 남북한의 장애정책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 비교

발표 : 김금순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토론 :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제2회의 보건·복지 II

사회 : 박재형 (서울대 의학과 교수)

제3발표 : 통일과정에서의 북한 어린이 건강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 : 정광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 백재중 (녹색병원 내과 과장)

제4발표 : 탈북청소년의 건강위험 실태조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발표 : 정효지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

토론 : 박윤숙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 제2차 법 / 인구 / 생태

### 제1회의 법·인구

사회 :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제1발표 :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분석: 북한 국제법사전을 중심으로

발표 : 이근관 (서울대 법학과 교수)

토론 : 유 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제2발표 : 북한의 인구: 1990년대 경제난/기근과 인구변동의 관계

발표 :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제2회의 사회단체·여성·노동

사회 : 박명규 (서울대 통일연구소장)

제3발표 : 북한 사회의 체제유지 기제에 관한 연구: 외곽단체(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발표 : 이온죽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토론 :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제4발표 : ‘남북여성교류’와 남북여성의 통합화에 관한 연구

발표 :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 김귀옥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제5발표 : 통일 후 남한 기반 산업체 취업을 위한 북한 이탈주민의 기초직업능력 요구분석

발표 : 이용환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토론 :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장)

### 제3회의 환경·생태

사회 :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제6발표 : 북한 가뭄 특성 분석 및 가뭄 우심지도 작성

발표 : 최진용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토론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7발표 : DMZ 지역내 생태환경 보전방안 및 관리지침서 개발

발표 : 신남식(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주승진 (서울대 수의학과 연구원)

토론 : 손기웅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Johan Galtung 교수 특강 글로벌 시대의 평화학, 그리고 한반도 통일전망



통일연구소는 지난 3월 18일 평화학(peace studies)의 창시자이자 세계적인 사상가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 교수를 모시고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글로벌 시대의 평화학, 그리고 한반도 통일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갈통 교수는 세계평화질서에 있어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를 구별하며, 한반도에서도 핵문제의 해결과 군축 등 소극적 평화의 단계를 넘어서서 남북한과 동아시아의 정체성이 교류하며 함께 공존하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반도에서의 적극적 평화 역시 소극적 평화를 전제하여 추구될 수밖에 없겠지만,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의

근원을 해소하지 못하면 평화에 대한 노력이 사상누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 평화의 개념만으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국경을 개방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와 생각의 교류도 증진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갈통 교수는 이러한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동아시아의 평화과정으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적극적 세계평화에 대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강연에는 교내외에서 100여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운집하여 갈통 교수의 변함없는 인기를 재확인하였으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IUS**

### 연구모임 진행 “대학원생 월례연구모임”

서울대 북한 연구 모임은 북미관계와 6자회담에 관한 대학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장달중 교수(정치학과)가 자문하고 있는 이 모임은 이정철 교수(송실대 정외과)와 임수호 박사(삼성경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10여명의 대학원생들이 모여 북한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북한의 협상전략에 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변국의 입장, 평화협정과 평화 프로세스, 평화체제와 군비 통제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또한 이정철 교수는 “6·15 체제와 말대말 공방”에 대해, 임수호 박사는 “프리제네바 체제와 제네바 체제”에 대해서 발표하며 토론을 주도하였다.

### “원서로 읽는 독일통일”

이 모임은 독일 통일에 관심이 있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19:00~21:00에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다. 박성조 교수(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통일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이 모임을 통해 학생들을 독일 통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접근과 동시에 독일어 강독 실력까지 배가 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지난 6월 16일 월요일 수업을 끝으로 약 2년여의 원서 강독을 마무리 지었다.

## 평화협상의 사례연구와 한반도 평화체제



- 일시** 2008년 6월 11일 (수) 오전 10시
- 장소**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회의실
- 발표**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 중동평화협상과 미국의 역할
-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 베트남 평화체제와 한국
- 이근관 (서울대 법대)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고찰: 독일 통일의 교훈을 중심으로
- 신유희 (서울대 외교학과)
-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 황지환 (서울대 통일연구소)
-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이상론과 현실론
- 토론**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 조동준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통일연구소는 지난 6월 11일 “평화협상의 사례연구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통일학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통일연구소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상과 이행전략에 관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의 중간발표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를 위한 다양한 평화협상의 다섯 가지 사례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신성호 교수(국제대학원)는 중동 평화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역할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미국이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보여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전재성 교수(외교학과)는 베트남 전쟁 종전을 미국과 베트남과의 평화협상을 연구하여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북미간의 협상과정에서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근관 교수(법대)는 독일 통일의 과정의 국제법적인 측면을 분석하며 독일의 경험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신유희 교수(외교학과)는 북미관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한국전쟁의 종전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이 보일 행동을 설명하였다. 황지환 박사(통일연구소)는 현재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가지고 있는 이상론적 접근법을 경계하며 베이징 6자회담 합의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레짐으로서의 현실적인 평화체제 논의를 분석하였다.

토론에 나선 김태현 교수(중앙대 국제대학원)와 조동준 교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한 다른 사례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역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하에 새로운 평화체제의 답론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함을 제안하였다. **IUS**

### 통일관련 전문서적 및 특수자료 등록

지난 1월 통일연구소 내 통일관련 전문서적 및 특수자료 약 2500여권을 서울대 중앙도서관 시스템에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통일연구소 내 모든 자료들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며 내방 시 복사 및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특수자료실 내 시청각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선중앙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며 연구소내 각종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다.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연구소 행사시 휴관, 전화 확인 후 방문)
- 이용대상 : 서울대학교 구성원 (일반인은 일반서적 복사만 가능)
- 자세한 안내는 전화 혹은 메일로 문의 (02-880-4052, tongil@snu.ac.kr)



## 북한-중국간 경제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구조



**시간** 2008년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00-12:00

**장소** 통일연구소 세미나실

**발표** 신상진 교수(광운대)

- 북-중간 정치외교관계
- 장경섭 교수(서울대)
- 북-중 간 산업구조 비교
- 정은미 선임연구원(통일연구소)

• 북-중 간 경제네트워크 분석

김병로 교수(통일연구소)

• 북-중 간 사회네트워크 분석

조은희 연구위원(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 북-중간 사회경제적 연결망 분석 적용

**토론** 조영남 교수(서울대)

배종렬 선임연구위원(한국수출입은행)

통일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인 “북한-중국간 경제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구조”를 수행한 연구팀

은 1차 연구결과를 6월 18일(수)에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발표하였다. 발표에는 신상진 교수(광운대), 장경섭 교수(서울대), 정은미 선임연구원(통일연구소), 김병로 교수(통일연구소), 조은희 연구위원(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이 참여했고, 조영남 교수(서울대)와 배종렬 선임연구위원(한국수출입은행)이 토론을 진행했다.

신상진 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형식상 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지만, 양국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북한에게 중국은 체제붕괴를 막아주는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대외고립을 타파하는 통로요 수단인 기능을 하며, 중국 역시 북한을 부담으로 간주하면서도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북한의 혼란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여 최소한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관계를 설명했다. 장경섭 교수는 스탈린식 국영중공업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어려움이 오늘날까지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의 근본적 결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적 중첩성 또는 보완적 경제요소의 빈약 때문에 양국 간의 경제협력의 증대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경제네트워크의 특징을 정치 종속성, 방어적 소극성, 지역편중성, 비대칭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1990년대를 전환점으로 양국의 경제네트워크가 혈맹적 관계에서 상업적 관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병로 교수는 양국간의 정치·군사·사회문화 분야의 인적왕래의 통로와 수단, 그리고 규모, 인구집단 등에 대한 현황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진하고 문화협력의 가교역할을 하는 북-중 휴먼네트워크의 작동실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은희 연구위원은 북-중 간 사회·경제적 교류를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양국간의 거시구조와 미시적 교류를 통한 통합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IUS**

### 〈통일아카데미 제4기 수강생 모집 안내〉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통일아카데미>과정 제4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대상 :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교 대학(원)생(타교생 신청 가능. 단, 본교생 우선)
- 접수기간 : 2008. 9. 1(월) - 9. 30(월) 오후 5시
- 교육기간 : 2008년 10월 7일(화) - 11월 25(화), 매주 화요일 19:00 - 21:00 (총8회, 현장학습 1일 별도 추가)
- 교육장소 : 서울대 통일연구소 내 세미나실
- 접수 방법 및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tongil.snu.ac.kr)에 공지하겠습니다.

## 최근 북미관계와 북핵문제의 현황 \_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연구소는 지난 2월 14일 퇴임을 앞둔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북미관계와 북핵 문제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송민순 장관은 최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입장과 북미관계의 전망에 관한 심도깊은 설명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세계 비핵화의 역사에서 북한 같은 나라와의 협상은 특이하고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과정인데, 그러한 어려움을 고려하면 북미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 농축 우라늄 시설, 그리고 시리아와의 핵 커넥션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북미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

이 이루어진 만큼 2.13 합의와 10.3 합의의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핵 문제에 일정부분 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미국은 대규모의 대북지원과 대북제재 해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에 있어 일대 돌파구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명규 통일연구소장을 비롯해 전인영, 장달중, 박삼욱, 이천표, 신육희, 전재성, 신성호, 임경훈 교수 등 2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IUS**



## 해외 이민자의 투표성향 분석 \_ Jan Fidrmuc (Brunel University, UK)

2008년 1월 17일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14차 통일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발표를 맡은 영국 브루넬 대학 피드르묵(Jan Fidrmuc, Brunel University, UK) 교수는 해외 이민자의 투표성향이 자국민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체코와 폴란드의 사례를 통해 검증했다. 선진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자국민보다 더 보수적인 정당에 투표를 했으며, 반대로 후진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자국민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피드르묵 교수는 경제적 선택이나 정치적 선택 이론을 배제하고 정치재사회화 이론을 주장했다. 즉 이주민들이 선진국에 거주하면서 그나라의 규범과 가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습득한 자유규범과 태도를 자국에 확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US**



## 북한의 교육제도와 현황 \_ 김길선 (전 북한 고등중학교 교사)

지난 4월 29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12차 새터민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 초청된 김길선 강사는 전 북한 고등중학교 교사를 역임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교육제도와 현황에 대해 강연해 주었다. 이번 새터민 포럼은 제3기 통일아카데미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그동안 주로 남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접했던 학생들에게 북한의 삶에 대한 보다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했다. 이 세미나에 대한 자료는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US**

## 최근 북미관계에 대한 중국의 시각 \_ 박건일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부소장)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는 2월 22일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부소장 겸 안전외교연구소장인 박건일 교수를 모시고 제15차 통일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북미관계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박건일 교수는 최근 북핵 협상과 이행의 논란, 한국의 신정부에 대한 중국 측 평가,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한 구상 및 미국, 일본,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대외전략과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 갔다.

박건일 교수는 특히 최근 북핵문제의 논란에 대해 중유지원의 지체문제와 북미간의 이견에 관해 설명하며, 중국의 중재자 역할과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6자회담을 동아시아다자안보협력체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중국은 미국 중심의 지역안보협력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6자회담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안보협력의 대화와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일본, 한국 등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기본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해 미국 및 일본과 정부간 혹은 민간 전략대화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는데, 한국과도 이러한 안보전략 논의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대한 중국 내 기대를 소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새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한미동맹, 자원외교, 비핵·개방·3000 등으로 요약되는 한국의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는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것 같다는 중국의 견해를 설명하며,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격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IUS**



## 한중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및 북중관계 \_ 김 철 (중국 요녕성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중심 교수)

2008년 6월 3일 중국 요녕성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중심의 김철 교수를 초청하여 지난 5월 27일 개최된 한중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북중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철 교수는 먼저 중국인들이 ‘동맹’을 배타성을 갖는 냉전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전략동맹’이 중국을 자극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중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한중간에 새롭게 격상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군사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포괄적 관계인 것은 사실이나,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동일한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 예컨대 러시아와 같은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미국은 아직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나 실제로 미중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며 이런 상황을 친족관계로 비유하면서 아무리 촌수가 가깝더라도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는 본질적으로 민족관계이면서 국제관계인데, 문제는 남북관계가 발전할수록 양국의 정권은 불안정해진다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이 문제는 더 심각한데 이런 점에서 한국의 대북정책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대북정책은 방향은 옳게 설정되어 있지만, 실천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IUS**



## 2008통일학 기초연구 지원 신청 안내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에서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제기될 제반 문제점을 진단·예측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통일학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통일학 연구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신청서는 2008. 7. 14(월)까지 통일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08. 7. 14(월)까지

나. 연구과제별 연구방식,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 (1) 기획과제

- 연구방식: 공동연구(교수 2인 이상이 참여하되, 학제적 연구 장려)
- 지원규모: 과제당 4,000만원 이내
-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 본교 전임강사 이상
  - 공동연구원: 교내외 전임강사 이상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원)의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으로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연구원

### (2) 자유과제

- 연구방식
  - 공동연구: 교수 2인 이상이 참여하되, 학제적 연구 장려
  - 단독연구: 교수 1인 개인연구
- 지원규모
  - 공동연구: 과제당 4,000만원 이내
  - 단독연구: 과제당 1,500만원 이내
-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 본교 전임강사 이상
  - 공동연구원: 교내외 전임강사 이상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원)의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으로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연구원

### (3) 논문지원과제

- 연구방식: 단독연구(1인 개인연구)
- 지원규모: 과제당 400만원 이내
- 신청자격: 교내외 전임강사 이상 교원 또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및 선임연구원
- 지원신청은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 (4)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연구장려금)

- 연구방식: 단독연구
- 지원규모: 과제당 600만원 이내
- 신청자격: 본교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자
  - ※ 신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소 홈페이지(<http://tongil.snu.ac.kr>) 참조

## 통일아카데미 제3기 수료 및 개성 답사

통일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통일아카데미 3기의 수료식이 지난 5월 27일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통일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마련된 통일교육 사업이다. 이번 제3기 통일아카데미는 4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8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강의 및

토론, 영상물 시청, 현장학습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8주 수업을 마친 후 수료식에서는 총 17명의 수강자 가운데 출석 우수생 14명에게 수료증이 발급되었다. 또 2008년 6월 20일(금)에는 현장학습체험의 일환으로 개성시내 및 공단을 견학하였다. 이 견학을 통해 남북한 진행되고 있는 경험의 생생한 모습은 물론 개성 주민들을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IUS**

횟수	강의날짜	강의주제	강사
1주	4월 8일	(입학식) 21세기적 통일비전	김병로 (통일연구소 전임연구교수)
2주	4월 15일	북핵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신욱희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3주	4월 22일	동유럽의 체제이행 경험과 북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4주	4월 29일	북한주민, 그들의 꿈과 삶	김길선 (전 북한 고등중학교 교사)
5주	5월 6일	남북민간교류 10년 평가와 새 정부의 방향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6주	5월 13일	북한의 권력 구조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평화기획실장)
7주	5월 20일	새터민의 탈북, 그리고 남한살이	박정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8주	5월 27일	다원화시대의 통일과 평화 (수료식)	박명규 (통일연구소 소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사진 1. 선죽교 앞에서



사진 2. 제3기 수료식

## 통일연구소 워크숍 개최(2008-1차)



통일연구소 연구진 및 관계자 9명은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 2박 3일동안 금강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새 정부 시대의 남북관광사업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의 및 통일연구소 2007년도 자체 사업 평가 및 발표, 그리고 20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 IUS 신간안내



- 서울대학교 통일학신서 2: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4)
- 서울대 통일학 연구총서 4: 최진용 외, 『북한가뭄 특성 분석 및 가뭄우심지도 작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근간

## 연구소 동정

- 2008. 2월 조홍식 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단장(2월) / 한국사회복지학회 부회장(5월) 임명
- 2008. 2월~5월 박정란 선임연구원, “여성 새터민 취업지원 방안,”(통일부), “18대 총선과 여성 새터민 정착지원”(한국여성정치연구소·한스자이텔재단), “새터민 정착지원의 새로운 개념”(한반도평화연구원), “국내입국 탈북자의 정착지원”(북한민주화위원회), “통일정책 60년: 회고와 전망”(한국행정연구원) 발표.
- 2008. 2. 13~17 ‘북중간 사회경제 연결망 형성과 변화’ 연구과제팀(김병로, 정은미, 조은희(이상 통일연구소 연구자), 장경섭(서울대 사회학과), 신상진(광운대 중국학과)) 중국 베이징과 칭다오 현지조사
- 2008. 3월 장경섭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방문 교수 활동 (2008년도 1학기)
- 2008. 6. 16~17 박명규 소장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개최된 ‘북한문학과 북한사회’ 워크숍에 참여 / 기조발제

## 대외 학술교류 / 방문

- 2003. 3. 31 Ulrich Beck 교수(Munich University) 내외 연구소 방문
- 2008. 1. 28~30 박명규 소장 중국 베이징의 연구기관(北京대학과 人民대학, 靑華대학의 관련연구소 및 중국사회과학원을 방문) 방문 및 상호 학술교류와 연구협력에 대하여 논의
- 2008. 2. 4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 2008. 6. 20 박명규 소장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SAIS를 방문, Don Oberdorf 소장과의 서울대 통일연구소와의 연구협력 관계를 논의 및 Asia Foundation의 Scott Snyder 소장과의 협력 논의



Ulrich Beck 교수 내외

## 통일연구소 2기를 맞으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를 아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조언과 도움을 주신 교내외의 전문가,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년 전 창립 심포지엄에 오셔서 축하와 함께 귀중한 제언을 해 주신 것을 시작으로 행사를 할 때마다 축하와 격려, 비판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가 필요한 연구기능을 갖추고 나름대로 사회에 지적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일연구소가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본교 이장무 총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교수님들의 성원과 참여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통일학연구지원사업'을 통해 교내외의 탁월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전문지식을 21세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과제와 접맥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소는 이 사업을 관리하는 한편 객관성과 논리성, 전문성을 갖춘 높은 수준의 지적 담론을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소 2기를 맞게 되는 앞으로의 2년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대북정책의 변화, 북핵문제를 둘러싼 다자관계의 진전, 북한의 체제적 위기 및 미국 대선 등으로 미루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시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귀중한 시기에 연구소장의 중책을 다시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여러분들의 성원과 조언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는 다학제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연구를 통해 통일학의 정립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전세계인의 공동관심사인 평화 문제에도 적극 참여하려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결코 한국인의 민족적 과제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전 인류의 평화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소는 조만간 명칭을 '통일·평화연구소'로 개칭하고 21세기 한민족의 과제인 통일학과 전세계적 과제인 평화학을 결합시키는 일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를 지켜보아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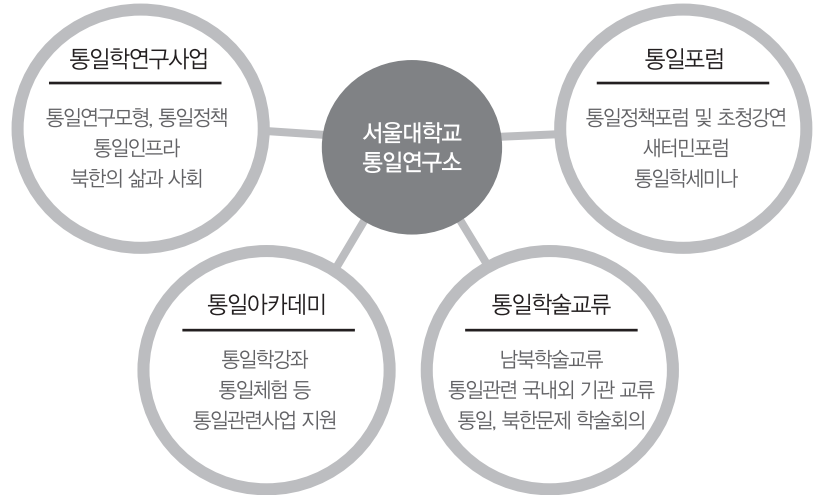
2008년 6월 30일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장 **박명규**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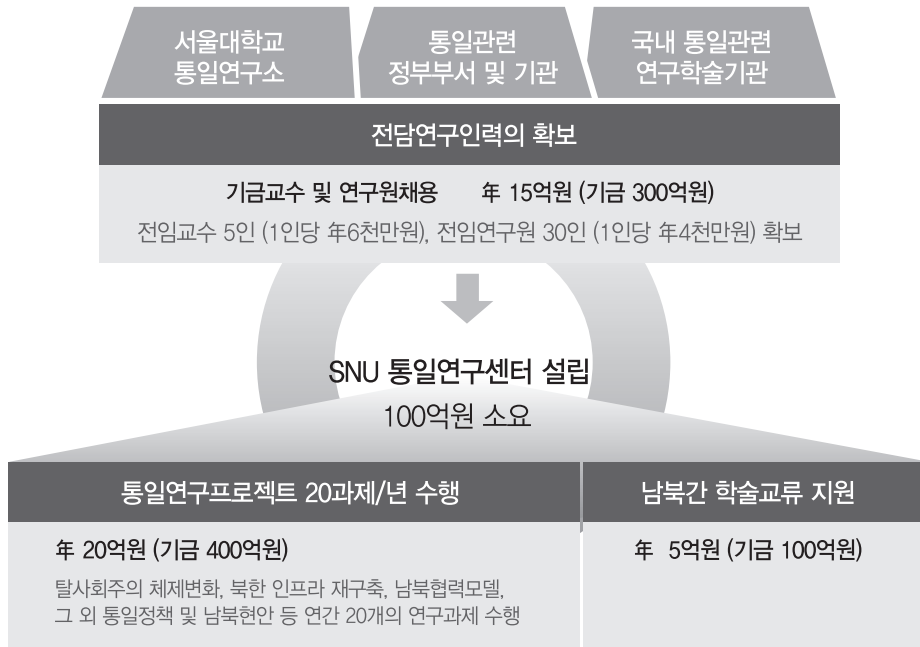
# SNU 통일연구센터 설립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추진, 서울대학교가 책임져야 할 국가적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내 통일연구의 체계화,**  
**남북간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통일연구센터의 설립 및**  
 초기 운영을 위한 비용  
**220억원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통일연구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내 통일학 연구를 종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센터 설립에 참여하실 분에게는

- ▶ 10억원 이상 기부하실 경우 출연자 존함의 기금명(SNU○○○통일학연구기금)으로 체계적인 통일학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 초빙교수, 전문가육성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소요비용(연간 약 6천만원) 만을 지원하실 수도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프로그램 명칭에 출연자 존함을 부여해 드립니다.

**Only One** 300억원 이상 기부



통일연구센터명에 기부자의 이름을 부여

